

〈춘향신설〉·남창 〈춘향가〉·〈익부전〉의
춘향 형상과 그 의미
- 작자의 계층에 주목하여 -

김지윤*

- I. 머리말
- II. 유교 규범을 학습한 여성
- III. 혼례 절차가 투습(套習)된 결연
- IV. 전통적 열녀(烈女)로의 경사
- V. 열행(烈行)과 신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 VI.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춘향신설(春香新說)>·남창 <춘향가>·〈익부전(益夫傳)>이 향촌(鄉村) 중인층(中人層) 작자에 의해 창작된 ‘춘향서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세 작품의 춘향 형상에 어떠한 공통적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검토하였다. 작품의 분석을 통해 향촌 중인층이 창작한 ‘춘향서사’에는 춘향이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한 인물로, 이도령과 혼례에 상응하는 절차에 따라 결연한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烈)’을 실천하는 전통적 열녀에 가깝게 형상화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촌 중인층이 춘향의 신분과 열행(烈行)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명하였다. 여타의 ‘춘향서사’와 달리 향촌 중인층의 ‘춘향서사’에는 열행의 실천에 있어 신분에 따른 차등은 있을 수 없다는 춘향의 주장이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본고는 이를 유교 규범의 준수 및 열행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인정받고 이로써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도모하였던, 실제 향촌 중인층의 신분 상승 의식이 투사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핵심어: 향촌 중인층(鄉村中人層), 춘향, 춘향서사, 춘향신설(春香新說), 남창 춘향가, 익부전(益夫傳)

1. 머리말

목태림(睦台林, 1782~1840)의 <춘향신설(春香新說)>과 신재효(申在孝, 1812~1884)의 남창(男唱) <춘향가>, 만와(晩窩)의 <익부전(益夫傳)>은 모두 19세기에 창작된 ‘춘향서사’¹⁾이다. <춘향신설>은 1804년에 창작된 것으로 밝혀졌고,²⁾ 남창 <춘향가>는 1870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비정되고 있으며,³⁾ <익부전>은 19세기 말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⁴⁾ 세 작품은 모두 19세기에 형성된 ‘춘향서사’라 할 것이다. 한편 <춘향신설>과 <익부전>은 한문으로 창작된 소설이고 남창 <춘향가>는 한글로 씌어진 판소리 사설로서 창작에 쓰인 문자와 양식이 상이하나, 세 ‘춘향서사’에는 19세기에 창작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세 작품의 작가가 모두 향촌(鄉村)에 거주하며 향리(鄉吏) 등의 직임을 맡기도 하였던 계층에 속한다는 점이다.

목태림은 경상도 사천의 이족(吏族) 출신이다.⁵⁾ 부친은 사천 관아에서 이방(吏房)을 지냈으며 목태림 역시 40대에 진흙색(賑恤色)이라는 이임(吏任)을 맡은 바 있다.⁶⁾ 신재효의 경우 그 가문이 대대로 향리를 맡았던 것은 아니나,

1) 본고는 판소리 사설로서의 <춘향가>와 소설로서의 <춘향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로 구성된 서사물 전체를 ‘춘향서사’로 지칭하고자 한다.

2) 김종철, 『춘향신설고』, 『고소설 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829면 참조.

3) 강한영, 『신재효 판소리 사설 해설』,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 민중서관, 1972, 13~14면 참조.

4) 류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19면 참조.

5) 목태림의 생애 및 문학의 전반적 성격에 대해서는 정선희, 『19세기 소설 작가 목태림 문학 연구』(보고서, 2005)가 참조된다. 단, 정선희 교수는 목태림을 한미한 향촌사족(鄉村士族)에 속하는 인물로 보았다.

부친이 전라도 고창에서 이서(吏胥)로 일하였고 신재효는 호장(戶長)을 지냈다.⁷⁾ 만와는 선행 연구에서 전라도 지역의 관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로서 전라도 지역의 향리일 것으로 추정되었다.⁸⁾ 이에 본고는 세 작자를 향촌의 중인층(中人層)에 속하는 인물로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조선의 신분은 양반(兩班)·중인(中人)·양인(良人)·천인(賤人)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인은 양반도 양인도 아닌 그 중간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분 계층으로서의 중인이라는 개념은 15세기 후반에 확립되어 조선 후기에 널리 통용되었다. 중인에는 기술관·향리·서리(胥吏)·양반 서얼(庶孽) 등이 포함되었던 바, 대개 행정 실무와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하급 지배 신분층이었다. 양반과 중인이 조선의 법제적 용어는 아니었으나 사회적 불평등을 내포한 신분의 구분으로 인식되었으며, 양반의 중인에 대한 차별 대우는 현격하였다.⁹⁾

한편 향촌 중인층은 향촌 지배체제에서 양반 계층인 수령(守令)과 양인 계층인 민(民)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 즉 이서(吏胥)와 향임(鄕任) 등을 포괄하는 계층이다.¹⁰⁾ 이로 미루어 〈춘향신설〉·남창 〈춘향가〉·〈익부전〉의 작자를 향촌의 중인층에 속하는 인물로 규정하여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향촌의 중인층 작자가 창작한 ‘춘향서사’의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춘향신설〉은 작자가 사실성·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작한 ‘춘향서사’이며,¹¹⁾ 공식문화적 세계관에 기반하여 충(忠)·효(孝)·열(烈)과 같은 유교 이념에 대한 옹호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논의되었다.¹²⁾

- 6) 이훈상, 『조선후기 사회 규범들간의 갈등과 향리사회의 문화적 대응』,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 158면 참조.
- 7) 이훈상, 『19세기 전라도 고창의 향리세계와 신재효』, 『고문서연구』 제26집, 한국고문서학회, 2005, 258~266면 참조.
- 8) 류준경, 앞의 논문, 207~212면 참조. 현재로서는 만와의 신원을 비정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가 없으므로 선행 연구의 추정을 존중하되, 만와가 지방 관아의 사정에 익숙한 향임(鄕任) 등의 직책에 속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익부전〉에는 향임의 일원인 좌수(座首)와 서울 출신 양반인 이도령 사이에 발생한 미묘한 신경전을 묘사한 에피소드가 삽입되어 있으며, 이 장면이 다분히 좌수의 입장에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9) 이성무, 『조선시대 신분 구성과 그 특성』, 『조선시대사학보』 제39집, 조선시대사학회, 2006, 190~192면 참조.
- 10)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8, 146~157면 참조.
- 11) 정하영, 『〈춘향전〉 한문이본군 연구』,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2003, 103~144면 참조.

신재효의 경우, 신재효가 속한 계층과 그의 작품을 관련지어 논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 개작을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인데, 향리층이 판소리 연행의 중개나 전주 대사습과 같은 판소리 명창 대회의 주관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바, 신재효의 행위를 향리의 실제 직임(職任)과의 관련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¹³⁾ 또한 중인은 지배층의 일원이지만 양반에 비해 신분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체제 유지적 성향과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계층이며, 이에 중인 신재효의 판소리에는 양반문화와 서민문화를 함께 지향하는 문화의식의 이중성이 공존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¹⁴⁾ 그리고 신재효는 이와 같은 이중성을 아우르며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판소리 사설을 개작하였다는 점도 이미 논의되었다.¹⁵⁾ 한편 신재효가 당대에 대가를 지불하고 판소리를 감상하던 다양한 향유층의 취향을 고려하여 개작한 결과 그의 사설이 이질적인 속성을 띠게 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⁶⁾

<춘향신설>과 <익부전>은 향리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논의된 바 있다. <춘향신설>은 향리 지식인으로서 자기 존재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봉건이념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는 목태립의 자의식이 드러난 작품으로, <익부전>은 판소리의 특성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한문이라는 상층의 문자를 사용하여 만화가 자기 계층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되었다.¹⁷⁾

<춘향신설>과 남창 <춘향가>도 향촌 중인층이 개작한 작품으로서 함께 검토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작품이 춘향의 열녀화에 중점을 두고 작자가 춘향과 이도령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 이상적인 인물로 형상화하면서 의식의 보수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두 작품에 향촌의 실상이 고발되어 있으며 정치의식이 표출되어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¹⁸⁾

12) 서현경, 『<춘향신설>과 <광환루기> 비교 연구』, 『고소설연구』 제8집, 고소설학회, 1999, 229~255면 참조.

13) 김홍규, 『19세기 전기 판소리의 연행환경과 사회적 기반』, 『어문논집』 제30집, 안암어문학회, 1991.

14) 서종문, 『신재효의 판소리사적 위상』, 『판소리연구』 제20집, 판소리학회, 2005.

15) 이상택, 『조선후기 중인층의 판소리 문학』, 『한국문화』 제13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16) 이지영, 『신재효 개작사설의 이질성에 대한 재고』, 『판소리연구』 제43집, 판소리학회, 2017.

17) 류준경, 앞의 논문, 219~225면; 214~234면 참조.

18) 정선희, 『19세기 향촌 중간층의 <춘향전> 개작 양상』, 앞의 책, 362~399면 참조.

이상을 통해 확인하였듯 <춘향신설> · 남창 <춘향가> · <익부전>에 대한 개별적 논의나, 각각의 작품을 주인공층의 문학으로서 검토한 연구는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개 향유자의 취향을 고려해 고립적으로 개작된 작품으로 간주하여 여타 향촌 주인공층 작자의 ‘춘향서사’와 더불어 심도 있게 분석되지 않음으로써, 향촌의 주인공이라는 작자의 계층적 특수성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¹⁹⁾ 이에 본고는 세 작품을 향촌의 주인공층이라는 동일한 계층의 작자가 창작한 작품으로서 아울러 고찰하여 그 공통의 특성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향촌 주인공층 작자가 창작한 ‘춘향서사’에 주인공 춘향이 어떠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 향촌의 주인공층이 춘향의 열행(烈行)과 신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본고의 목표로 삼는다.

II. 유교 규범을 학습한 여성

향촌의 주인공층 작자가 창작한 ‘춘향서사’의 각 작품에서 춘향이 어떠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각기 춘향의 신분이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춘향신설>에서 춘향은 기생으로 나타난다. 춘향은 기생 월매의 딸²⁰⁾이지만 기생의 이름을 적은 명부인 기생안(妓生案)에는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²¹⁾ 춘향의 나이가 어리기에 아직 동기(童妓)로서 이름을 올리

19) 서종문 교수는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이 기실 독서물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신재효가 판소리 사설을 개작하며 일정한 관점으로 개입하는 서술자의 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이 독서물에 적합한 서술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서종문, 『판소리와 신재효 연구』, 제이앤씨, 2008, 116면 참조). 본고는 이러한 견해를 참조하여 남창 <춘향가>에서 신재효가 담지한 작자로서의 인식과 일정한 지향에 주목하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0) “本府妓月梅之女, 春香也”(허호구 · 강재철 공역, 『역주 춘향신설 · 원도한문춘향전』, 이희문화사, 1998, 130면). <춘향신설>의 번역은 허호구 · 강재철 교수의 번역을 참조하여 필자가 다소 수정하였으며, <춘향신설>의 원문은 허호구 · 강재철 교수의 책에 수록된 것을 인용한다.

21) “香娘乃女磨一娼妓所生也. 名雖不載於列妓之案, 身既賤於月梅之女”(허호구 · 강재철 공역, 위의 책, 136면).

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름이 누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또한 <춘향신설>에는 춘향의 신분 변동이 보이지 않고 시종일관 기생으로 나온다.

한편 남창 <춘향가>에는 춘향의 모친이 퇴기(退妓) 월매로, 부친은 성 천총(千總)으로 설정되어 있다.²²⁾ 이도령의 부친이 남원부사로 도입하기 이전에 춘향은 이미 대비속신(代婢贖身)하고 규중(閨中)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난다.²³⁾ <익부전>에서 역시 춘향의 모친은 퇴기 월매이다. 부친은 향리인 양명수(梁命修)인데 월매에게 한 번 결눈질을 하였다가 춘향이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²⁴⁾ <익부전>의 춘향은 이도령을 만날 당시 기생 신분이었으나 기억(妓役)을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²⁵⁾ 이도령과 이별한 뒤에 면역(免役)되어 신분이 변동된다.²⁶⁾

향촌 중인층 작자가 창작한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신분은 각기 다르지만, 춘향은 평소 유교적 여성 규범을 익히고 또 행실이 사대부가(士大夫家)의 규수에 비등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는 방자가 이도령에게 춘향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춘향신설>의 방자는 춘향에 대해 “충명하고 수려한데다 음률에 능통하며 비록 기생집의 하찮은 소생이나 몸가짐은 사대부 집안의 규수와 다름이 없다”²⁷⁾고 이도령에게 고한다. 남창 <춘향가>에서 역시 방자는 춘향이 미모와 재주를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행실이 사대부가 여성에게 지지 않는 인물이라고 이도령에게 소개한다.²⁸⁾ <익부전>의 방자 또한 춘향이 옥 같은 외모를

22) “月梅라 하는 계집 (…중략…) 子息이 없삼기로 四十이 넘은 후에 成 千總을 作配하여 자식을 보려 하고 (…중략…) 十朔 차서 딸 낳으니”(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 민중서관, 1972, 7~9면). 이하 남창 <춘향가>의 원문은 강한영 교주, 위의 책에서 인용한다.

23) “代婢 넣어 贖身하고 집에 있어 工夫하여 外人相通 아니 하니 養在深閨人未識에 얼굴 알이 혼잡구나”(강한영 교주, 위의 책, 3면).

24) “實非良家處子. 自是本府退妓月梅女息, 其父果鄉吏梁命修, 一平生產者”(『익부전』, 29면).

25) “春香眉峯半展, 低聲始言曰: “雖是妓賤, 故不行役, 養在閨房”(『익부전』, 34면).

26) “吏房對曰: ‘香卽春香, 而年今十七歲, 以前使道子舍道令主隨廳, 一自離別之後, 免役獨處’(『익부전』, 98면). 한편 조광국 교수는 기생의 대비속신(代婢贖身)이나 면역(免役)이 실제 조선후기의 법제도상 위법적인 것이라고 보았다(조광국, 『<춘향전> 완편84장본의 작품적 가치』, 『한국문화와 기녀』, 월인, 2004, 269~294면 참조).

27) “聰明秀麗, 能通音律, 一府中, 皆香娘稱之. 雖曰娼家之餘生, 操行無異於士大夫之閨養”(허호구·강재철 공역, 앞의 책, 130면).

28) “이 아이 생긴 것이 얼굴이 絶色이요 재주가 天生이다. 文章, 音律, 針線, 飲食 가지가지 다

지닌 데다 시서(詩書)를 이해하고 마음가짐이 굳고 깨끗해 탁월한 절행(節行)을 갖추었다고 소개한다.²⁹⁾ 나아가 〈익부전〉의 방자는 춘향에 대해 “하는 말마다 예(禮)에 합당하고 하는 일마다 이치에 맞는 인물”이라 평한다.³⁰⁾

이와 같은 방자의 춘향에 대한 인식은 〈남원고사〉나 경판(京板) 30장본 〈춘향전〉에서의 양상과 사뭇 다르다. 〈남원고사〉는 19세기 후반 서울에서 필사된 ‘춘향서사’로서 민중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³¹⁾ 경판 30장본 〈춘향전〉은 서울의 방각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춘향서사’이다.³²⁾ 또한 경판 30장본은 이후에 등장한 여러 종의 경판 〈춘향전〉의 모본(模本)이 되고 있는바, 경판 〈춘향전〉의 전승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방각본 ‘춘향서사’이다.³³⁾ 즉 〈남원고사〉 및 경판 30장본 〈춘향전〉은 동시대의 향촌 중인층이 창작한 ‘춘향서사’와 창작의 지역적 기반 및 작품에 드러나는 지향이 상이한 ‘춘향서사’라 할 수 있으며, 양자는 춘향의 형상에 있어 여러 가지로 다른 면모를 보인다. 〈남원고사〉의 방자는 춘향의 미모와 자질을 인정하지만 그 성품은 “매물하고 사재며 교만하고 도드다”고 평한다.³⁴⁾ 경판 30장본 〈춘향전〉에서는 방자가 춘향을 다만 “본읍 기생 월매 딸”로, “창녀”로 소개할 뿐 춘향의 평소 행실에 대한 방자의 평가는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향촌의 중인층 작자가 창작한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어떠한 연유로 행실이 사대부가의 규수와 같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가. 이는 춘향이 평소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고 규범을 준수하는 행실을 보여온 데서 기인한다.

잘하니 文후은 曹大家요 筆法은 衛夫人, 蔡文姬의 精通音律, 天上女の 針工資質 모두 겸비하였으며, 列女傳 內則篇을 밤낮으로 工夫하여 一動一靜하는 行實 士夫女 지잖지요”(강한영 교수, 앞의 책, 9면).

- 29) “春香, 年今十六歲. 容顏如玉, 通解詩書, 熟諳女工, 操心堅潔, 節行卓異”(『익부전』 29면).
 30) “元得曰: ‘春香雖是女子, 言言合禮, 事事中理’”(『익부전』, 44면).
 31) 〈남원고사〉는 1864년에서 1869년 사이에 필사된 것이 확실하고 당시 주로 서울에서 유통된 세책본으로서 서울에서 임친 민중문학적 성격을 띤 ‘춘향전’으로 이해되어 왔다(김동욱 외, 『춘향전 비교연구』, 삼영사, 1979, 20면 참조; 성현경, 『〈남원고사〉본 춘향전의 구조와 의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영출판사, 1993, 434면 참조).
 32) 김석배, 『춘향전 일본의 생성과 변모 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62면 참조.
 33) 김석배, 위의 논문, 172~176면 참조;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69면 참조.
 34) “본읍 기생 월매 딸 춘향이오 춘광은 이팔이오 인물은 일식이오 형질은 빙옥이오 지질은 소약난이오 풍월은 설도오 가곡은 섬월이라 아직 서방 정치 아니코 이시나 성품이 띠물하고 스지고 교만하고 도드지가 영소보던 북극턴문의 턱 건 줄노 알외오”(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5, 박이정, 1997, 15~16면).

<춘향신설>의 춘향은 이도령의 부름에 응하기를 주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비록 화방(花坊)의 기생 무리로서 바탕이 더럽고 몸이 천하지만 어찌 담을 넘어 남자를 만나는 일이 추하며 치마를 걷고 물을 건너 음란한 일을 벌이는 것이 꺼림칙함을 모르겠소.”³⁵⁾

‘담을 넘어 남자를 만나는 일’³⁶⁾과 ‘치마를 걷고 물을 건너는 일’³⁷⁾은 모두 부모의 허락이나 중매를 거치지 않은 채 남녀가 만나는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춘향은 이것이 추하고 꺼려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춘향신설>의 춘향은 기생이지만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자의적으로 남성을 만나는 일이 적절치 않다는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에 이도령을 만나기를 주저하며 스스로에게 남녀유별(男女有別)의 규범과 내외법(內外法)을 적용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남창 <춘향가>의 춘향 역시 독서를 통하여 유교 규범을 습득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월매는 춘향에게 7세부터 글을 가르쳤던바 춘향의 글재주는 일취월장하였다고 서술된다.³⁸⁾ 또한 춘향은 『열녀전(列女傳)』과 『예기(禮記)』의 『내칙(內則)』을 밤낮으로 공부하며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고 체화(體化)하였던바 그 행실이 사대부가의 여성에 뒤지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³⁹⁾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한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예법(禮法)을 근거로 이도령의 부름을 거절한다. 처녀로서 대낮에 거리를 활보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이에 춘향은 시비(侍婢) 향단에게 이도령의 생김새를 보고 오라 명한다.

35) “春香雖以花坊妓流，質陋身賤，豈不知踰牆之可醜，蹇裳之可嫌”(허호구·강재철 공역, 앞의 책, 130면).

36)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하(下)에 나오는 “부모의 명(命)과 중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구멍을 뚫어 엿보며 담을 넘어 따르다면, 부모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긴다”(不待父母之命、媒妁之言，鑽穴隙相窺，踰牆相從，則父母國人，皆賤之)라는 구절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말이다.

37) 『시경(詩經)』 『간상(褰裳)』의 “그대 나를 사랑하여 그리워한다면/내 치마를 걷고 진수(溱水)를 건너리”(子思惠我，褰裳涉溱)에서 유래한 말이다.

38) “七歲부터 글 가르쳐 日就月將하는 才操 測量할 수 없었구나”(강한영 교주, 앞의 책, 3면).

39) “列女傳 內則篇을 밤낮으로 工夫하여 一動一靜하는 行實 士夫女 지잖지요”(강한영 교주, 위의 책, 9면).

“事勢를 생각하면 가 봄 직도 하다마는 갔다가 꼭 붙들러 夫婦되자 한다면 女子의 終身大事 輕率히 하겠느냐. (…중략…) 道令님의 생긴 儀表 房子 말만 믿겠느냐. 네 눈으로 보았으면 대강 斟酌할 터이니 廣寒樓 건너가서 지나가는 아이 같이 道令님을 보고 오라.”⁴⁰⁾

향단은 광한루 기둥 뒤에서 몰래 이도령을 관찰하고 돌아와 이도령이 용(龍)과 같고 봉(鳳)과 같은 인물이라고 극찬한다. 향단을 통해 이도령의 용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이도령이 보낸 편지를 통해 그 재주를 알아차린 춘향은 이도령과의 결연을 결심한다. 그러나 춘향은 이러한 마음 역시 직접 이도령을 만나 전하지 않고 편지로 전할 따름이다.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춘향신설〉의 춘향과 같이 기생의 딸이지만 남녀유별과 내외법이라는 유교 규범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또 준수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익부전〉의 춘향 역시 평소 『예기』의 『내칙』편과 『효경(孝經)』을 읽는 인물이다.⁴¹⁾ 이러한 책을 읽으며 유교 규범을 학습한 춘향은 ‘충신불사이군, 열녀불경이부’(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를 좌우명으로 삼았던 듯하다. 이는 춘향이 방의 문미(門楣)에 ‘충신불사이군, 열녀불경이부’라고 쓴 비단을 걸어두었던 데서 확인된다.⁴²⁾ 또한 이도령의 부름에 응할지를 두고 방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익부전〉의 춘향은 모친의 명이 있고서야 이도령을 만나러 광한루로 향한다.⁴³⁾ 『효경』을 읽으며 효심을 갖추어 모친의 명을 거스르지 않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춘향이 평소 『예기』나 『열녀전』, 『효경』 등을 읽는다는 설정은 ‘춘향서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면모는 아니다.⁴⁴⁾ <남원고사>나 경판 30장본 <춘향전>에는 춘향이 평소 독서를 하는 양상이나 규범을 학습하는 양상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남원고사>의 춘향이 이도령의 부름

40) 강한영 교주, 위의 책, 13면.

41) “春香燭下憑几, 方讀『內則』篇”(『익부전』 23면); “直坐對書床, 口讀『孝經』, 德音如玉, 可識其人”(『익부전』 46면); “南窓邊置白銀莊飾宗櫺木冊床, 鋪積『內則』, 『孝經』等冊”(『익부전』 49면).

42) “雙楣上付錦幅大書,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익부전』 49면).

43) “汝恨爲妓所生之不幸而已, 衙子弟要見之促, 有誰而抗, 速去速去.” 春香, 孝行純備, 母令不忤, 隨房子向來樓上”(『익부전』 30면).

44) 춘향이 평소 독서를 즐기는 인물로 묘사된 ‘춘향서사’로는, 춘향의 열녀적 형상이 약여한 이본으로 평가되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가 있다.

에 응하게 된 것은 광한루에 가지 않으면 월매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하리라고 방자가 춘향을 협박하였기 때문이다.⁴⁵⁾ 경관 30장본 <춘향전>에서는 도령과 인연을 맺으면 남원 것이 다 네 것이 되리라는 회유를 한 끝에 방자가 춘향을 데리고 광한루로 향한다.⁴⁶⁾ <남원고사> 및 경관 30장본 <춘향전>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향촌 중간층 작자의 ‘춘향서사’에는 춘향이 효심을 갖추고 유교적 여성 규범을 익혀 스스로에게 남녀유별의 규범과 내외법을 적용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III. 혼례 절차가 투습(套習)된 결연

평소 유교적 규범을 학습하고 이도령과의 만남을 결심하는 데 있어 스스로 규범을 적용하던 춘향은 이도령과의 결연에서도 규범에 따른 절차를 중시하는 면모를 보인다.

<춘향신설>의 춘향은 기생 신분이기 때문에 이도령과의 결연을 스스로 결정하고 월매의 개입 없이 이도령과 인연을 맺는다. 춘향은 이도령과 결연하는 자리에서 비록 육례(六禮)를 행함이 없더라도 한마디 약정(約定)을 두어 영원히 아내로서 의복 시중을 들며 평생 해로(偕老)하는 것이 평생 숙원이라고 말한다.⁴⁷⁾ 이에 이도령은 춘향에게 약정으로서 한 편의 시를 지어 주며, 춘향 역시 시를 지어 이도령에게 화답함으로써 결연의 절차를 마무리한다.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에서 주목할 것은 춘향이 요구한 ‘약정’이라는 문서가 ‘육례’, 즉 혼례의 절차를 대신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남창 <춘향가>에는 춘향이 이도령과의 결연에서 절차를 중시하는 면모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도령이 춘향의 집을 처음 찾아갔을 때 춘

45) “만일 슈의 틀니면 네 어미 월미가지 상급살을 먹을 거시니 네 아니 가면 그만 잇솔 듯 시 부냐”(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5, 19면).

46) “우리 도련님이 바로 신궁동이라 네 향긋로운 말로 초친 물음을 믿든 후의 네 향는 솟갸가 락을 빨적궁 빠져다가 돌돌 마라셔 윈편 불기씩 부쳐시면 남원 거시 다 네 거지 돌 거시니 그 아니 쇼홀손냐”(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50면).

47) “雖無六禮之行，諒有一言之定，若使永奉箕箒，將侍衣巾，與君子偕老，則小女之平生宿願也”(허호구·강재철 공역, 앞의 책, 131면).

향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때에 春香이는 房 안에 혼자 앉아 禮記를 읽어갈 제 “男子親迎할새 男先於女는 剛柔之義也니 天先乎地하며 君先乎臣은 其義一也니라.”⁴⁸⁾

춘향은 이도령의 첫 방문을 기다리며 『예기』 「교특생(郊特性)」의 한 구절을 읽고 있는데, 이는 곧 혼례에 관한 구절로서 남녀가 혼인을 함에 있어 ‘신랑이 가서 신부를 맞아오고 남자가 먼저 여자를 인도함이 옳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춘향이 이도령의 방문을 앞두고 『예기』에서 혼례에 관한 내용을 찾아 읽고 있는 위의 장면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춘향이 이도령과의 결연을 혼례로 여기고 이 결연이 혼례의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헤아려보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춘향은 결연을 함에 있어 남성인 이도령이 주도하고 여성인 자신은 따르는 지금의 상황이 규범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다고도 여겨진다.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은 혼례에 준하는 절차를 따르는 양상으로 그려진다. 먼저 이도령은 춘향의 모친 월매에게 춘향과의 결연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한다. 월매가 혹시라도 춘향이 버려져 가련하게 될 것을 걱정하자 이도령은 자진하여 불망기(不忘記)를 써주겠다고 말한다.

“자네 萬一 疑心하여 내 말 곧이 안 들으면 婚書紙는 못할 터나 不忘記를 하여 줘세.”⁴⁹⁾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서지(婚書紙)를 보내는 일은 당시 일반적인 혼례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였으며, 신부에게 혼서지는 이를 보낸 가문의 남성과 혼인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역할을 하였다. 춘향이 기생의 딸이며 이도령 가문으로부터 허락받지 못한 결연이기 때문에 혼서지가 불망기로 대체되기는 하나, 이도령의 위와 같은 말에 비추어 볼 때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에서 불망기는 혼서지와 대등한 의미를 지닌다. 월매는 이

48) 강한영 교주, 앞의 책, 15~17면.

49) 강한영 교주, 위의 책, 19면.

도령으로부터 불망기를 받고 “우리 모녀의 평생대사(平生大事)가 이 한 장에 매였다”고 말하는데, 월매 역시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혼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된다.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에 혼례의 절차가 투습(套習)되고 있음은 여러 장면에서 확인된다. 이도령은 월매가 차려온 술을 합환주(合歡酒)로 지칭하며 춘향과 나누어 마신다.⁵⁰⁾ 신랑과 신부가 합환주를 마시는 합근례(合覓禮)는 혼례에서 빠질 수 없는 절차이다. 또한 이도령은 첫날밤에 <사랑가>를 부르며 “너는 처녀 나는 총각 결발부부(結髮夫婦) 그 아니며, 불망기와 합환주가 납채행례(納采行禮) 그 아니냐”⁵¹⁾라고 노래한다. 이도령의 <사랑가>는 불망기와 합환주가 정식 혼인 절차에서의 납채(納采)와 혼례식에 상응함을, 또 춘향과 자신이 부부의 연을 맺었음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⁵²⁾ 즉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은 이도령과 약식(略式)의 혼례를 치른 여성이 된다. 혼례의 규범이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에 투습됨으로써 이들의 결연은 혼례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바, 춘향은 이도령과 부부의 연을 맺었음을 근거로 하여 신관 사또에게 항거한다.⁵³⁾

<익부전>에는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에 길일(吉日)을 택함을 가리키는 연길(涓吉), 취첩문표(娶妾文標), 합환주 화소가 삽입됨으로써 혼례의 절차가 보다 뚜렷하게 투습되어 있다.⁵⁴⁾ 이도령이 춘향의 집을 찾아와 결연을 요구하자 춘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50) “道승님이 半만 먹고 春香 어미 도로 주며, ‘이것이 合歡酒니 자네 딸이 먹으라소’”(강한영 교주, 위의 책, 21면).

51) 강한영 교주, 위의 책, 23면.

52) 현전하는 ‘춘향서사’ 가운데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 및 동창(童唄) <춘향가>, <익부전>, 완관 84장본 <달녀춘향수절가>, 장자백 창본 <춘향가>, 백성환 창본 <춘향가> 등에서 춘향과 이도령이 결연하며 마시는 술이 합환주로 일컬어진다. 춘향과 이도령이 결연하며 마시는 술이 합환주로 지칭되는 것이 ‘춘향서사’에서 일반적인 양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3) “舊官宅 道승님이 年少하신 風情으로 小人 집에 찾아 오서 西廂佳約 懇請하니 老母가 許諾하고 不忘記받은 후에 李氏宅에 許身하여 百年巾櫛 받들기로 단단 一心먹었더니”(강한영 교주, 위의 책, 39면).

54) 류준경 교수는 <익부전>에 보이는 택일 화소가 두 사람의 결연이 쌍방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정당한 절차에 이루어졌음을 보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류준경, 앞의 논문, 136면 참조).

“도령님이 춘흥(春興)을 이기지 못해 저에게 정을 주려 하신다면 길일(吉日)을 택해 비록 하찮은 물건으로라도 예물(禮物)을 대신해 주시고, 첩(妾)을 얻는다는 문서를 한 장 써주신 다음에야 붉은 잎에 기대어 붉은 끈을 묶어 부부의 인연을 맺었어요. 이것이 예에 합당하고 절차에 맞습니다.”⁵⁵⁾

춘향은 자신이 이도령의 첩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연에 있어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주장한다. 『내칙』을 읽는 등 평소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여 왔던 춘향은 이도령의 첩이 될지언정 예절에 부합하는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도령은 먼저 정을 맺은 뒤에 문서를 써주어도 되지 않느냐고 묻지만, 춘향은 택일하여 문서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따르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한다. 이에 춘향은 모친 월매와 함께 결연할 날짜를 택해 이도령에게서 취첩문표 및 예물을 대신한 신표(信標)를 받는다. 한편 <익부전>에서는 결연의 모든 과정에 월매가 개입하는데, 월매는 약식의 혼례에 참석하여 춘향과 이도령의 합근례를 주관한다.⁵⁶⁾

<익부전>의 춘향은 평소 자신의 행실이 사대부가의 규수와 다르지 않음을 자부해 왔던바,⁵⁷⁾ 이도령과의 결연에서도 유교적 규범에 의거한 절차를 중시하며 규범을 준수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처럼 약식의 혼례를 거쳐 결연한 춘향은 이도령에게 단순한탁정(托情)의 대상이 아니라 첩실일지라도 부부의 연을 맺은 여성이 된다.

이상을 통하여 향촌의 중인층 작자가 창작한 ‘춘향서사’에는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과정에 혼례의 절차가 투숙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작품에서 춘향은 모두 이도령으로부터 다수의 ‘춘향서사’에 등장하는 불망기(不忘記)에 상응하는 문서를 받는다. 그러나 춘향이 받은 문서는 <남원고사>나 경판 30장본 <춘향전>에 보이는 불망기와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남원고사>에서 춘향은 이도령과의 결연에 앞서 불망기를 요구한다.⁵⁸⁾

55) “道令主不勝春興，若欲托情，擇涓吉日，物雖賤微，代以紅定，書出一張娶妾文標然後，憑紅葉，繫赤繩。斯可謂當禮中節也”(『익부전』 47면).

56) “老母曰：‘此是婚娶，勿辭飲之’”(『익부전』 54면).

57) “春香曰：‘身雖出於妓屬之家，姑無點污於人，行操自同於大班家處子’”(『익부전』, 46면).

58) “도련님 구든 뜻이 구지 그러혹실진디 요마 쇼첩이 불송황공이라 엇지 봉승치 아니리잇고 다만 세스를 난측이오니 훗일 빙거지물이 업지 못할지라 일당문서를 민드라 쇼첩의 막음을 실희옵쇼셔”(김진영 외, 앞의 책, 23면).

이때 불망기가 육례 등의 혼인 절차를 대신한다는 언급은 보이지 않으며, 결연하는 과정에서 규범에 의거한 절차를 중시하는 면모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⁵⁹⁾ 한편 경관 30장본 <춘향전>에는 춘향이 받은 불망기가 <춘향신설>·남창 <춘향가>·<익부전>에서와는 판이한 성격의 문서라는 점이 뚜렷이 제시되어 있다. 춘향은 결연에 앞서 이도령에게 불망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먹의 찌는 삭는 일이 업습고 관가는 종문권 시형이오니 혹 실시지페 니스죽 후일 상고초로 불망기를 호여 주소서”⁶⁰⁾

춘향은 이도령이 자신과의 사랑의 약속을 저버릴 경우 관가에 호소하기 위해, 그 증빙 문서로서 불망기를 요구한다. 이에 이도령은 다음과 같은 불망기를 써 준다.

“모년 모월 모일 춘향전 불망기라 우불망기편은 우연이 손천 구경코져 광한루의 올났다가 천싱비필를 만나미 불승당정호여 빅연가약을 맺기로 상약호되 일후 만일 비약호는 폐 잇거든 츄문기로 고관변정시라”⁶¹⁾

이도령이 써 준 불망기는 우연히 춘향을 만나 탕정(蕩情)을 이기지 못해 백년가약을 맺기로 약속하니, 만일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문서를 증거로 관가에 사정을 하소연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불망기의 내용은 경관 23장본 <춘향전>과 경관 16장본 <춘향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로 볼 때 경관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춘향에게 써 준 불망기는 사랑의 약속을 문서화 한 것으로, 다분히 계약 문권(文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⁶²⁾ 또한 사랑의 약속을 어겼을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한 증빙 문서로

59) 김동욱 교수는 <남원고사>의 불망기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이 없는 일종의 계약 문기(文記)라고 하였다(김동욱 외, 앞의 책, 99면 참조).

60)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4, 51면.

61)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4, 52면.

62) 신동훈 교수는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이 불망기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이들의 타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신동훈, 『평민 독자의 입장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 신학균본 별춘향가를 중심으로』, 『관소리연구』 제6집, 관소리학회, 1995, 186면 참조).

서의 의미를 가지며, 규범적인 혼례의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 <남원고사> 및 경관 <춘향전>과의 비교를 통해 향촌의 중인층 작자가 창작한 ‘춘향서사’에서 불망기는 혼서지에 상응하는 문서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춘향신설> · 남창 <춘향가> · <익부전>에는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과정에 혼례의 절차가 투습되어 있다.

IV. 전통적 열녀(烈女)로의 경사

춘향이 평소 견지해 왔던 정절(貞節) 또는 열(烈)에 대한 관념은 신임 남원사로부터 수청 명령을 받고 이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표면화된다.

<춘향신설>의 춘향은 신관 사또에게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기생집의 천한 소생으로서 머리에 쪽을 찌고 남의 아내가 되었으니 또한 어찌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없겠습니까? 봉천(奉天) 두씨(竇氏)의 딸은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벼랑에 떨어져 목숨을 버려 당(唐)나라 덕종(德宗)이 정문(旌門)을 세워주었습니다. 초(楚)나라 왕웅(王凝)의 아내가 여관 주인에게 손목이 끌어당겨졌다고 해서 팔을 잘라 지조를 보이니 고을의 자사(刺史)는 여관 주인을 매질하였습니다. 명분은 귀하고 천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야 옛날과 지금에 다름이 있겠습니까?”⁶³⁾

춘향은 자신을 봉천(奉天) 두씨(竇氏)와 왕웅(王凝)의 아내에 견준다. 또한 신관 사또에게 올린 원정(原情)을 통해서도 『백주(栢舟)』 시를 지은 공강(共姜)과 하후영녀(夏侯令女) 같은 역사 속 열녀들을 거론하며 자신의 열행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두씨나 공강, 하후영녀 등은 모두 『소학(小學)』에 그 열행이 수록되어 있는 열녀들이다. 『소학』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여성들에게 유교 이념을 학습시키는 가장 주요한 텍스트였다.⁶⁴⁾ 따라서 『소학』에 수록된

63) “以娼家之賤生，結髮而爲人婦，則亦豈無節行乎？奉天竇氏之女，不辱而投崖捐軀，唐之德宗旌其門。楚之王凝之妻，被牽而斷臂示志，郡之刺史杖其主。名分雖異乎貴賤，節行何殊於古今”(허호구·강계철 공역, 앞의 책, 137면).

64) 이숙인, 『조선시대 여성교육론』, 『한국유학사상대계 V : 교육사상론』, 한국국학진흥원, 2006,

열녀들의 열행은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유교 이념에 근거한 열행의 모범이자 표본으로 인식되었을 터이다.

<춘향신설>의 춘향이 이러한 표본적 열녀들에 자신을 빗대고 있음은, <춘향신설>의 춘향이 견지하고 있던 ‘열’에 대한 관념이 표본적 열녀들의 ‘열’에 대한 관념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춘향신설>에서는 춘향의 ‘열’이 『소학』 등의 유교적 수신서(修身書)에 제시된 유교 이념으로서의 ‘열’, 조선 사회를 규율하던 유교 규범으로서의 ‘열’과 다분히 유사한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은 반첩여(班婕妤)와 이비(二妃)의 본을 받아 수절하겠다며 신관 사또에게 항거한다.

“소녀의 먹은 마음 사또님과 다르오니 道令님이 無信하여 設令 다시 안 찾으
면 班婕妤의 본을 받아 玉窓螢影 지나갈 제 秋夜 羅帷 지키다가 이 몸이 죽삼거
든 黃陵廟를 찾아 가서 二妃 魂靈 모시옵고 斑竹枝 저문 비와 蒼梧山 밝은 달에
놀아 볼까 하옵는데 再醮 守節 하란 分付 施行할 수 없삽네다.”⁶⁵⁾

반첩여와 이비는 평소 춘향의 방에 걸려 있던 그림 속의 인물이다. 춘향 방치레의 하나인 ‘사벽도 사설’이 남창 <춘향가>에서는 열녀의 그림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동쪽 벽에는 순(舜)임금의 비(妃)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남쪽 벽에는 항우(項羽)의 총희(寵姬)였던 우미인(虞美人)이, 서쪽 벽에는 한(漢)나라 성제(成帝)의 후궁이었던 반첩여가, 북쪽 벽에는 석숭(石崇)의 첩이었던 녹주(綠珠)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이들은 모시던 남성을 위해 수절하거나 지아비가 죽자 따라서 자결한 여성들로, 결연한 남성에 대한 정절을 지켜 역사 속에서 열녀로 인정받고 누누이 회자되는 인물들이다.

춘향이 이도령을 만나기 이전부터 열녀들의 그림을 방에 걸어놓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열녀들을 자신의 본보기로 삼아왔음을 적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열녀전』과 「내칙」을 읽으며 여성 규범을 학습하고 열녀도를 벽에 걸어 본보기로 삼으면서,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

556면 참조;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제8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45면 참조.

65) 강한영 교주, 앞의 책, 41면.

서의 ‘열’ 관념을 습득하고 열행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져온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춘향은 신관 사또의 수청 요구로 자신의 정절이 손상될 위기에 처하자 일찍이 모범으로 여겨온 열녀들의 본을 받아 수절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열행을 실천한다.

〈익부전〉의 춘향은 이도령과 이별한 뒤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별에 대해 극렬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⁶⁶⁾ 또한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을 거부하여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결을 시도하기도 한다.⁶⁷⁾ 자신의 신체를 훼손해 가며 열행을 실천하는 〈익부전〉의 춘향 역시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을 실천하는 전통적 열녀에 가까운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⁶⁸⁾

향촌의 중인층 작자가 형상화한 춘향이 전통적 열녀에 가깝다는 점은 <남원고사> 및 경판 30장본 <춘향전>과의 대비를 통해 더욱 선연히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남원고사>에서 춘향의 열행은 <춘향신설>이나 남창 <춘향가>에서와는 상이한 인물들에 비견된다.

춘향이 었즈오디 즈고로 열네하더무지리오 양구조어 엄즈릉도 간의티후 마다
호고 즈릉티의 피우호고 슈결의스 빅이숙제 불식듀속 흐라호고 슈양산의 치미
가를 노력호고 텃하진인 딴도람도 화산석실 슈도호고 디순이비 향아녀영 혈누
뉴황 쓰라 잇고 뉴한님의 스부인도 슈월암의 엄적호고 낙양의녀 계שמ월도 천진
누의 글을 읊혀 평성 슈결호엿다가 양쇼유를 쓰라가고 티원쓰 흥불기도 난세에
뜻을 세워 만나당정 종군호여 니정을 쓰라시니 몸은 비록 천호오나 절기는 막는
범이 업스오니⁶⁹⁾

<남원고사>의 춘향은 신관 사또에게 항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절개를 엄자릉(嚴子陵)·백이(伯夷)·숙제(叔齊)·이비(二妃) 등 역사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은 물론, 소설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에 등장하는 사씨(謝氏) 부

66) “春香起而沛，沛而起，斥破酒器，椎胸跳身，左仆右顛，拍掌反目，上轉下倒，齒咬衣裳，幅幅皆破，手爬莎草，指指皆傷，甚至有擢拔頭髮，磕擦面臉，流血落地，湧淚濕衣，不可以全人謂之，如此無已，則死而後已。自丹見此光景，屢諫扶護挽之，又挽步步引來”(『익부전』, 81면).

67) “吾與其杖斃，毋寧自處之爲愈。”搜出五尺錦巾，一端掛於梁上，一端圍結項頸，方爲懸縊”(『익부전』, 152면).

68) 김지윤, 『익부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4~35면 참조.

69)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5, 88면.

인과 <구운몽(九雲夢)>에 등장하는 계섬월 등에 빗댄다. <남원고사>에서 춘향의 수절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구분을 떠나 인간으로서 모시는 사람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일에 건주어지고 있다.

경판 30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신관 사또에게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충(忠)이 있듯, 자신에게는 이도령에 대한 열(烈)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거한다.⁷⁰⁾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듯 자신은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한 경판 30장본 <춘향전>에서도 춘향의 열행은 굴원(屈原)이나 백이·숙제에 건주어진다.⁷¹⁾

대개 춘향은 이도령과의 사랑 및 신의의 결과로서 ‘열’을 형성하고 그 사랑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열’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⁷²⁾ ‘열녀’라는 말은 유교적인 윤리규범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지만, 춘향이 열행을 실천한 것은 봉건적인 윤리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이도령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시각이다.⁷³⁾

그러나 <춘향신설>이나 남창 <춘향가>에서는 춘향의 열행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을 지킨 전통적 열녀의 열행에 비유된다. 또 <익부전>에서는 춘향의 열행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여 ‘열’을 수호한 열녀전(烈女傳) 속의 열녀들과 유사하게 그려진다. 더욱이 세 작품의 춘향은 이미 독서를 통해 유교적 여성 규범을 습득하고 이도령을 만나기 이전부터 표본적 열녀들을 본보기로 삼아온 인물이다. 이는 춘향의 열행이 인간으로서 사랑과 신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되는 여타의 ‘춘향서사’와 변별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남원고사> 및 경판 30장본 <춘향전> 등 여타의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의 열에 대한 인식과 향촌 중인층 작자가 창작한 ‘춘향서사’에 보이는 춘향의 열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향촌 중간층

70) “고인의 충신은 불스이군이오 려녀는 불경이부라 호오니 스또계서는 응당 알으실지라 만일 국운이 불헝호여 난시를 당호으면 스또계서는 도적의게 굴슬하시리잇가”(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4, 62~63면).

71) “만고충신 굴원도 부득기지호미 먹나슈의 빠져 죽고 불스이군 백이 숙제도 충절을 직하여 슈양손의 쥘러 죽엇스니 이를 호츰호여 려네 되라거든 상강의 빠져죽으미 그 아니 맛당호가”(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4, 79면).

72) 박희병,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 분석』, 임형택·최원식 편,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 99~107면 참조.

73) 임형택, 『민중문학의 성립과 그 형상적 사상: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273~277면 참조.

작자가 춘향을 전통적 열녀에 가깝게 형상화한 것은 이들이 춘향의 열을 다분히 전통적인 ‘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에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증명한다.

V. 열행(烈行)과 신분의 상관관계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향촌의 중인층에 속한 작자가 창작한 〈춘향신설〉· 남창 〈춘향가〉· 〈익부전〉에는 춘향이 평소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고 이를 준수한 인물로, 또 전통적 관념의 열녀에 가까운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향촌 중인층 작자의 ‘춘향서사’에는 신임 남원부사에게 항거하는 장면이, 규범 또는 열행의 실천과 신분의 상관관계에 대한 춘향의 인식이 명시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춘향신설〉에서 춘향은 “육례(六禮)를 행함이 비록 천한 기생의 몸에는 있을 수 없다 해도 삼종지의(三從之義)는 사대부 가문에만 있는 것입니까?”⁷⁴⁾ 라고 신관 사또에게 항거한다. 춘향은 자신의 신분이 미천함을 인정하지만, ‘삼종지의’라는 유교적 여성 규범은 신분의 고하(高下)에 상관없이 적용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나. 춘향의 규범과 신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발언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성인의 마음은 천지(天地)처럼 공평합니다. 천지가 만물을 만들어 기를 적에 높은 산의 나무만이 때 맞춰 내리는 비에 젖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골짜기의 풀도 따뜻한 봄에 피어납니다. 소첩의 몸이 비록 천하고 더럽지만 대강 지키는 바가 있으니 어찌 성인이 내린 가르침과 여자의 행실을 모르겠습니까?”⁷⁵⁾

춘향은 천지(天地)가 만물을 공평하게 기르듯 성인의 교화(教化)는 신분

74) “六禮之行，雖無於賤妓之身，三從之義，獨有於士大夫之家乎”(허호구·강재철 공역, 앞의 책, 137면).

75) “聖人之心，公如天地。天地之化育萬物也，高山之木，不獨被時雨之涵，幽谷之草，亦有得陽春之發。小妾身雖賤陋，粗有所操，豈不知聖人之垂訓，女子之有行”(허호구·강재철 공역, 위의 책, 137면).

의 고하에 상관없이 베풀어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신도 신분은 미천하지만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성인의 교화를 입어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였다는 것이다. 즉 <춘향신설>의 춘향은 규범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신분에 따른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이미 이도령의 부름을 거절하며 “명분(名分)도 중요하지만 예법(禮法)도 중요하다”⁷⁶⁾고 주장한 바 있다. 예법을 지키는 데 있어 명분, 즉 신분의 상하귀천(上下貴賤)에 따른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춘향은 신관 사또에 항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節行에는 上下 없어 匹婦의 가진 貞節 天子도 못 뺏거든 사또 奪節하실 테요.”⁷⁷⁾

춘향은 절행(節行)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실천하는 것이기에 낮은 신분의 여성도 정절을 지키며, 그 정절은 임금도 빼앗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규범의 적용과 실천에 있어 신분에 따른 차등이 있을 수 없음을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선언하고 있다.

<익부전>에서도 규범이나 열행은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춘향은 이도령과 결연할 때에 자신의 행실을 양반가(兩班家) 처자(處子)의 행실과 같은 것으로 자부한 바 있다.

“몸은 비록 기생의 집에서 났지만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한 점 더럽혀진 일이 없으니 행실은 절로 대단한 양반가의 처자와 같습니다.”⁷⁸⁾

또한 춘향은 신관 사또에게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또 기생의 천한 말로써 한 지아비와 끝내 함께 늙겠다는 것이 어찌 옛 사람의 행실을 본받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정절을 지키는 데는 반상(班常)의 차이가 없습니다. 맹세코 분부를 따를 수 없으니 죽어도 사또의 마루에는 오르지 않겠습니다.”⁷⁹⁾

76) “名分도 重커니와 禮法도 重하나라”(강한영 교주, 앞의 책, 11면).

77) 강한영 교주, 위의 책, 41면.

78) “春香曰: ‘身雖出於妓屬之家, 姑無點汚於人, 行操自同於大班家處子’”(『익부전』, 46면).

〈익부전〉의 춘향은 〈춘향신설〉의 춘향과 같이 신분이 미천한 사람도 옛 사람의 행실을 본받아 유교적 여성 규범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창 〈춘향가〉의 춘향처럼 정절을 지키는 데에는 양반과 상민(常民)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익부전〉의 춘향 역시 ‘열’에 대한 관념을 익히고 열행을 실천하는 데에 신분에 따른 차등은 있을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춘향이 자신의 수절이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규범의 적용과 열행의 실천에 있어 신분에 따른 차등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하는 양상은, 향촌 중인층 작자가 창작한 ‘춘향서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⁸⁰⁾ 반면 〈남원고사〉의 춘향은 신관 사또에게 자신이 대비정속하여 더 이상 관기(官妓)가 아니며, 열녀의 본을 받아 수절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⁸¹⁾ 자신의 신분이 더 이상 관기가 아니라는 점이 수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경관 30장본 〈춘향전〉에서도 춘향은 자신이 더 이상 관기가 아니며 사또에게 충(忠)이 있듯 자신에게는 열(烈)이 있다는 논리로 항거한다.

한편 ‘춘향전’ 원래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며 문체나 내용 등에서 평민문학 적 면모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신학균본 〈별춘향가〉에서⁸²⁾ 춘향은 사족부녀(士族婦女)의 본을 받아 절행을 하였음을 내세운다.⁸³⁾ 여기에는 상층의 규범을 본보기로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춘향의 인식이 드러난다. 요컨대 〈남원고사〉 및 경관 〈춘향전〉, 신학균본 〈별춘향가〉에는 열행의 실천에는 상하

79) “且以妓賤言之夫終老，豈不欲效於古人之行乎？守紅保青，班常無間，誓不從分付，死不欲昇堂”(『익부전』, 103면).

80) 한편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도 춘향이 신임 남원부사에게 항거하며 “충효열녀 상하 이소”라는 발언을 한다. 임형택 교수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가장 포괄리한 ‘춘향서사’로 보고, 이 장면에 대해 춘향이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상하의 신분적 구별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음을 항변한 것으로서 춘향의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각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임형택, 앞의 논문, 266~274면 참조). 그러나 본고는 이와 다소 견해를 달리한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여러 측면에서 향촌 중인층이 창작한 ‘춘향서사’와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향촌 중인층의 ‘춘향서사’에 나타난 인식 및 지향과 관련지어 논의해야 할 작품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 보이는 “충효열녀 상하 이소”라는 춘향의 발언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

81) “디비정속후은 후는 관기가 아니옵고 도련님 가신 후로 두분불출 수절후와 만분지일이라도 열녀의 본을 맞고져 믿음의 삭여소오니 분부거형은 못후기쇼”(김진영 외, 앞의 책, 87면).

82) 신동훈, 앞의 논문, 165~166면 참조.

83) “스족분여 본을 바다 절형을 흐라스니 스지를 써져도 가망 읍고”(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13, 박이정, 2004, 494면).

가 없다는 훈향의 선언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을 통해 훈향 중인층 작자가 창작한 ‘훈향서사’에는 규범의 적용 및 열행의 실천에 있어 신분에 따른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훈향이 열행의 실천에 있어 양반 여성과 자신의 행실이 동등하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훈향 중인층 작자의 ‘훈향서사’에 보이는 열행과 신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신분이란 집단 간의 법제적(法制的) 차등(差等), 즉 형식적 불평등을 징표로 하는 집단이다.⁸⁴⁾ 조선시대 양반은 향리와 서얼 등 중인에 대한 차대(差待)에 적극적이였다.⁸⁵⁾ 그러나 중인층은 양반으로부터의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⁸⁶⁾ 특히 19세기 훈향 사회에서 향리를 중심으로 한 계층은 양반의 차대에 저항하며 양반층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⁸⁷⁾

이러한 조선 후기의 사회적 배경 위에서 훈향 중인층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는 향리들은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였다.⁸⁸⁾ 그 노력의 하나는 예의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 자신들이 규범의 준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양반 사족(士族)과 닮음이 없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634년(인조 12) 안동의 향리들은 양반과 마찬가지로 3년 상(喪)을 지내게 해 달라고 부사(府使)에게 청원한다. 조선은 차등적 위계화(位階化)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를 국시(國是)로 삼았던바, 3년 상을 비롯한 예의규범의 철저한 이행은 본래 양반 사족에게만 요구되었다. 양반 역시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비롯한 유교 규범의 준수를 하층의 신분과 자기 신분을 구분하는 덕목으로 간주하고 있던 터였다. 그럼에도 향리들이 3년 상을 준수하겠다고 결의하고 그 결의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은, 국전(國典)에 규정된 양반 사족과 중인 향리 간의 예의규범의 차등을 부정하고 나아가 양반과 신분적으로 동등하다는 것

84) 유승원, 『조선초기신분제 연구』, 을유문화사, 1988, 7~8면 참조.

85) 정진영, 『훈향사회에서 본 조선후기 신분과 신분변화』, 『역사와 현실』 제48집, 한국역사연구회, 2003, 68면 참조.

86) 이성무, 앞의 논문, 191면 참조.

87) 정진영, 앞의 논문, 67~76면 참조.

88) 향리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은 법제적 신분을 양반과 동등한 것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기보다는, 양반으로부터의 차대(差待)를 축소하고 나아가 자기 계층의 현실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노력하였던 움직임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을 내세우려는 노력의 한 표현이었다.⁸⁹⁾ 향리들의 이러한 주장은 규범을 준수하고 열행을 실천함에 양반과 상민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춘향의 주장과 상통한다. 향리들의 규범의 준수와 신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즉 규범의 준수에 있어서는 신분적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은 향촌 중인층 작자가 형상화한 춘향에 투사되어 있다.

이 외에도 향리들은 자신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향리의 사적(事蹟)을 담은 책인 『연조귀감(掾曹龜鑑)』을 18세기 말에 편찬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도 유교적 예의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향리는 양반과 동등한 신분이라는 주장을 펼친다.⁹⁰⁾ 더욱이 19세기 중반에 간행된 『연조귀감속편(掾曹龜鑑續編)』에는 「효열녀별전(孝烈女別傳)」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효열녀별전」에는 많은 향리 가문의 효녀와 열녀들의 행적이 집성되어 있다.⁹¹⁾ 이를 통해서도 중인층의 향리들이 자기 계층에 수많은 효녀와 열녀가 있음을 내세워 열행의 실천에 있어 양반과 다름이 없음을 주장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된다.⁹²⁾

이로 볼 때 향리층에 있어 규범의 준수와 열행의 실천은 분명 그들의 신분상승 의지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익부전>에 보이는 향촌 중인층에 속하는 인물이 열행의 실천에 있어 신분에 따른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을 천명하는 장면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익부전>에는 남원 일대의 과부들이 춘향의 열행에 동정을 표하며 춘향의 구명(救命)을 위해 문서를 작성하는 에피소드가 들어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향촌 중인층 출신의 과부인 향리 이사옥(李思沃)의 딸과 향임(鄕任) 박원장(朴院長)의 딸이다.⁹³⁾ 향리 이사옥의 딸은 납채(納采)를 받은 뒤에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평생 수절하였고, 박원장의 딸은 혼례식 날에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평생 수절하였다. 이들은 춘향이 천기(賤妓)로서 수절하다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춘향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글을 짓는데,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89) 이훈상, 『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 1990, 88~89면 참조.

90) 이훈상, 위의 책, 243면 참조.

91) 「孝烈女別傳」, 『掾曹龜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1982, 767~848면.

92) 이훈상, 위의 책, 229면 참조.

93) 류준경 교수는 원장(院長)이 서원(書院)의 원장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지만 임뢰(任賂)에 관한 언급에서 좌수 다음에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향임과 비슷한 성격의 직책일 것으로 보인다. (류준경, 앞의 논문, 208면 참조).

들어 있다.

“맹세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⁹⁴⁾

평생 수절한 과부인 향리 이사옥의 딸과 박원장의 딸은, 지아비에 대한 정절의 맹세를 바꾸지 않는 데는 신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들은 춘향에 대해 천한 기생이지만 열행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신들과 같은 열녀라고 인정한다. 다시 말해 춘향은 열행의 실천을 통하여 자신보다 상층의 신분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동등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익부전>의 이 장면은 조선후기 향촌 중인층이 규범의 준수와 열행의 실천 앞에 모든 신분은 동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고 생각된다.⁹⁵⁾ 더불어 규범의 준수와 열행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로써 지위의 상승을 도모하였던 향촌 중인층의 신분상승 의식이 향촌 중인층 작자가 그려낸 춘향의 형상에 투사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VI. 맺음말

본고는 <춘향신설>·남창 <춘향가>·<익부전>이 향촌 중인층 작자에 의해 19세기에 창작된 ‘춘향서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세 작품의 춘향 형상에 어떠한 공통적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향촌 중인층의 신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세 작품의 춘향 형상에 투사되어 있음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19세기 서울에서 형성된 ‘춘향서사’인 <남원고사>·경관 <춘향전>과의

94) “矢心不更, 貴賤無間”(『익부전』 165면).

95) 이사옥의 딸은 향리층의 인물이며 박원장의 딸은 향임층의 인물로 본래 속한 계층이 다르지만, 열행의 실천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본래 이서(吏胥)와 향임은 구별되는 집단이었으나 19세기 들어 향정(鄉廳)이 수령의 보좌기구로 변함에 따라 향임들도 점차 이서집단이 담당하던 행정실무를 함께하게 된다. 따라서 두 계층은 향촌 지배체제 내에서 수령 아래의 중간층으로서 그 역할이 서로 근접해 간다(고석규, 앞의 책, 146~157면 참조). <익부전>에 향리층의 인물과 향임층의 인물이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묘사된 데는 이와 같은 현실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

비교를 통해 향촌 중인층이 창작한 ‘춘향서사’의 춘향 형상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향촌 중인층이 창작한 ‘춘향서사’의 춘향은 『예기』·『열녀전』·『효경』 등의 독서를 통해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고, 기생의 딸이지만 스스로에게 남녀유별의 규범과 내외법을 적용하는 인물이다.

둘째,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과정에 계약 문권이 아닌 혼서지에 상응하는 불망기가 나타나고, 택일 및 합환주 화소가 삽입되어 있는바 이들의 결연에는 혼례의 절차가 투숙되어 있다.

셋째, 이미 독서를 통해 유교적 여성 규범을 습득한 춘향이 역사 속의 표본적 열녀들을 자신의 본보기로 삼으며 규범적인 열을 견지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넷째, <춘향신설>·남창 <춘향가>·〈익부전〉에는 대개의 ‘춘향서사’와 달리 열행의 실천에는 신분에 따른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춘향의 주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향리로 대표되는 향촌 중인층의 신분 상승 의식과 결부된다. 실제 향리들은 조선 후기에 유교 규범의 준수 및 열행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도모하였다. 향촌 중인층의 신분 상승에 대한 의식은 이들이 창작한 ‘춘향서사’의 춘향 형상에 투사되어 있다.

이상의 논의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이래 춘향을 민중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만 규정하거나⁹⁶⁾ 이념적 보수성을 보이는 일부 ‘춘향서사’를 양반의 취향에 부합한 퇴화⁹⁷⁾로 규정하는, ‘춘향서사’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다소나마 극복해 보려는 시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향촌 중인층 작자의 ‘춘향서사’에도 향촌 중인층으로서의 신분 상승 의식이 투사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춘향서사’가 하층의 민중뿐만 아니라 향촌 중인층에게도 자기 계층의 관점에서 수용되고 자기 계층의 인식을 투사하여 재창작될 수 있는 서사였음을 증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향촌 중인층의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의 형상과 그 의미만을 검토함으로써 향촌 중인층이 창작한 ‘춘향서사’의 전체적인 성격을 조망하

96) 김태준, 박희병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00~202면 참조.

97) 김홍규, 『신체호 개작 춘향가의 판소리사적 위치』, 『한국학보』 4권 1호, 일지사, 1978.

지는 못하였다. ‘춘향서사’ 전체의 이념적 지평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향촌 중인층의 ‘춘향서사’는 이념적 보수성이 강화된 작품들로 평가된다. 따라서 작품이 보여주는 이념적 보수성과 향촌 중인층의 계층적 의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료

『益夫傳』(류탁일 소장본)

『掾曹龜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1982.

강한영 교수, 『신재효 판소리사설집』, 민중서관, 1972.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_____, 『춘향전 전집』 5, 박이정, 1997.

_____, 『춘향전 전집』 13, 박이정, 2004.

허호구·강재철 공역, 『역주 춘향신설·현토한문춘향전』, 이회문화사, 1998.

2. 단행본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8.

김동욱 외, 『춘향전 비교연구』, 삼영사, 1979.

김태준, 박희병 교수,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서중문, 『판소리와 신재효 연구』, 제이앤씨, 2008.

유승원, 『조선초기신분제 연구』, 을유문화사, 1988.

이훈상, 『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 1990.

정선희, 『19세기 소설 작가 목태립 문학 연구』, 보고서, 2005.

3. 논문

김석배, 「춘향전 이본의 생성과 변모 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종철, 「춘향신설고」, 『고소설 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825~867면.

김지윤, 「익부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홍규, 「신재효 개작 춘향가의 판소리사적 위치」, 『한국학보』 4권 1호, 일지사, 1978, 2~40면.

_____, 「19세기 전기 판소리의 연행환경과 사회적 기반」, 『어문논집』 제30집, 안암어문학회, 1991, 1~42면.

류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박희병,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 분석」, 임형택·최원식 편, 『전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5, 82~140면.

서중문, 「신재효의 판소리사적 위상」, 『판소리연구』 제20집, 판소리학회, 2005, 61~78면.

- 성현경, 「<춘향신설>과 <관한루기> 비교 연구」, 『고소설연구』 제8집, 고소설학회, 1999, 229~257면.
- 신동훈, 「평민 독자의 입장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 신학근본 별춘향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6집, 판소리학회, 1995, 161~218면.
- 이상택, 「조선후기 중인층의 판소리 문학」, 『한국문화』 제13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161~176면.
- 이성무, 「조선시대 신분구성과 그 특성」, 『조선시대사학보』 제39집, 조선시대사학회, 2006, 187~194면.
- 이지영, 「신재효 개작사설의 이질성에 대한 재고」, 『판소리연구』 제43집, 판소리학회, 2017, 111~138면.
- 이숙인, 「조선시대 여성교육론」, 『한국유학사상대계 V : 교육사상론』, 한국국학진흥원, 2006, 535~610면.
- 이훈상, 「조선후기 사회 규범들간의 갈등과 향리사회의 문화적 대응」, 『판소리연구』 제16집, 판소리학회, 2003, 139~180면.
- _____, 「19세기 전라도 고창의 향리세계와 신재효」, 『고문서연구』 제26집, 한국고문서학회, 2005, 235~290면.
- 임형택, 「민중문학의 성립과 그 형상적 사상: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255~300면.
-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정진영, 「향촌사회에서 본 조선후기 신분과 신분변화」, 『역사와 현실』 제48집, 한국역사연구회, 2003, 53~80면.
- 정하영, 「<춘향전> 한문이본군 연구」,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2003, 103~144면.
- 조광국, 「<춘향전> 완판84장본의 작품적 가치」, 『한국 문화와 기녀』, 월인, 2004, 269~294면.
-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제8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29~59면.

The Characteristics of Chunhyang and its Meanings in
Chunhyang-sinseol, *Namchang Chunhyang-ga*, and *Ikbu-jeon*
- focused on the social stratum of the authors -

Kim, Ji-yoon

This paper is aimed to confirm the hypothesis that Chunhyang-sinseol(春香新說), Namchang(男唱) Chunhyang-ga(春香歌), and Ikbu-jeon(益夫傳) were written by the authors who belonged to the middle class in the country districts, so there were some commonness of Chunhyang(春香) character in these works. From the confirm, I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 on Chunhyang(春香) character in these works.

1. Chunhyang was educated pursuant to the Confucian standard. She was the partner of Yidoryeong(李道令), not his wife since they were not legally married. However, she followed almost all the marriage proceeding.

2. Chunhyang was characterized by her practice of Confucian ethics, so she was regarded as the traditional faithful wife.

3. With the practice of Confucian ethics, Chunhyang asserted that there should not be the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ocial status and class. And this assert reflected the consciousness of the middle class in the country districts, who promoted the upward social mobility with the practice of ethics.

In short, according to their class consciousness the middle class in the country districts understood Chunhyang and described her.

keywords: Middle Class, Chunhyang(春香), Chunhyang-sinseol(春香新說),
Namchang(男唱) Chunhyang-ga(春香歌), Ikbu-jeon(益夫傳)

접수일자: 2019. 3. 31.
심사기간: 2019. 4. 1.~2019. 5. 10.
게재결정: 2019. 5. 10.